



# 주간 통일정세

2007-1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대체 에너지 개발 촉구(12/9, 조선중앙통신)**
  - “물이 흐르는 곳마다” 수력 발전소를 짓자는 등 원유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5월 량강도 삼수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가 완공된 데 이어 함경남도 정평군과 황해북도 연산군 등에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 개발 본격화를 독려
  - 풍력 발전기, 저열탄(발열량이 낮지만 연료로는 쓸 수 있는 석탄)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본격화 되고 있으며,
  - 농촌 살림집에서는 퇴비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탱크에 저장했다가 조리, 난방, 조명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2008년 2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지원에 의한 북한 주요 도시 배수시설 보수 계획(12/7,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웹사이트 보고서)**
  - 2008년 2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지원을 받아 북한 주요 도시의 배수시설을 개보수할 계획
  - 이는 노후 배수시설이 올해 북한 수해를 확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인정된 데서 따른 국제적 지원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됨.

- **백두산 지역 전기화 작업 확대(12/6, 조선중앙방송)**
  - “삼지연지구의 전기화가 실현돼 인민들이 그 덕을 크게 보고” 있으며, “삼지연 못가를 비롯한 곳곳에 있는 답사 숙영각에서는 올해 겨울철 답사를 시작한 각 계층 근로자와 청소년 학생들이 전기 난방화된 방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이 답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선전

#### 나. 김정일 동향

- **백두산지구 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각별한 격려 전달 (12/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이 “백두산지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으며, “평양 문수식료공장 종업원들이 혁명의 성지(백두산)를 꾸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6.18건설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벌여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해 준 것으로 보도



● **김정일, 공군부대 및 軍운영 생산시설 시찰 보도(12/4, 1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4일 공군 제378부대를 시찰하였으며,
- 또한 12월 6일 북한군 제1596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방문, 목화밭을 돌아보며 목화 시험재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농장에서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최근년간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리고 목화농사를 과학화 하는데 필요한 적지 않은 경험을 축적”한 데 대해 치하
- 김 위원장은 북한군이 새로 건설한 목화가공공장에도 들러 생산공정을 시찰한 것으로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노동당 부장, 리용철. 리재일 노동당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 등이 동행

다. 정치관련

● **청년동맹 전원회의 개최(1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김경호 제1비서를 해임하고 후임에 리용철씨를 임명
-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 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창립된 것으로서 만 14~30세까지의 근로자, 학생, 군인 등 전체 청소년이 가입 대상이며 맹원수는 500만 명으로 추산됨.

●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설정하여 선군시대 공로자 따라 배우기 운동 확대(12/5, 노동신문)**

-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설정하고 ‘선군시대 공로자 따라 배우기 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주민동원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동원 분위기를 적극 조성

● **대화와 전쟁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독려(12/4, 노동신문)**

- 미국이 “무모한 전쟁책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화와 전쟁에 다 같이 준비하는 것이 평화의 강력한 담보로 된다는 것은 우리 인민이 체험한 귀중한 교훈”이라고 강조

라. 사회 관련

● **‘향토꾸리기 운동’ 독려(12/9, 조선신보)**

- 북한이 2003년부터 ‘향토꾸리기 운동’을 벌인 결과 4년 만에 처음으로 심사를 통과한 ‘모범단위’가 나오는 등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도

● **군인문화 확산 강조(12/6, 노동신문)**

- 노동당원이 앞장서 “온 나라에 군인정서, 군인문화가 시대의 향기로 꽃피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군대가 선군문화의 선도자가 되



고 혁명적인 군인문화가 온 사회의 본보기 문화로 되고 있는 여기에 선군시대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근본특징이 있다.”고 강조

- **지역간 교육경쟁을 위한 ‘모범교육군’ 쟁취운동 전개(월간 ‘조국’, 2007년 12월호)**
  - 경제재건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모범교육군(구역) 칭호 쟁취 운동’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간 경쟁을 고취

##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힐 차관보, 北 양형섭 면담(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방북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일행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박의춘 외무상을 면담(12/4)했으며 일행과 함께 평양지하철을 참관한 것으로 보도

### 나. 북·일 관계

- **北, 日 ‘위안부’문제 다룬 다큐 제작(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록영화 ‘20세기 반인륜 특대형 범죄’를 제작한 것으로 보도
  - 이 영화는 특히 “야만적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문건을 소개하고 있음.

### 다. 북·중 관계

- **김일성종합대 대표단 중국방문 후 귀환(12/8, 조선중앙방송)**
  - 성자립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이 중국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고 8일 평양으로 귀환
- **中선전서 첫 북한 미술전시회 개최(12/5, 연합뉴스)**
  -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열리는 첫 번째 북한 미술전시회인 조선당대 저명화가초청전이 4일 선전 허상닝(何香凝)미술관에서 개막
  - 이번 전시회는 북중 수교 이후 광둥(廣東)성에서 열린 북한 미술전시회로는 제일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 미술계의 원로 선우영 화백과 북한 최대의 미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 화백 등 북한의 인민예술가와 공훈에



술가 25명이 95점의 작품을 출품

### 3. 대남정세

- **정부, 北에 철강판 5천 10t 지원(12/9, 연합)**
  -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 불능화 이행 대가로 제공되는 에너지 설비 지원의 1차 공급분으로 철강판 5천 10t을 오는 17일 북에 배송할 예정임을 밝힘.
- **서해평화협력추진위 연내 개최 불투명(12/9, 연합)**
  - 남북이 총리회담에서 12월 중 열기로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서해추진위)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짐.
- **금강산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12/7, 연합)**
  - 남북간 이산가족 교류관련 업무를 담당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사무소가 7일 준공
  - 남북이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烏包)마을에 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한지 4년 1개월, 2005년 8월 착공한지 2년5개월 만에 준공되었으며,
  - 남북은 내년 상반기 면회소의 준공에 앞서 직원들을 사무소에 상주시켜 금강산 상봉행사를 지원하고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과 관련한 업무를 협의할 계획
- **북한에 약솜공장 건설 우선 지원(12/7, 연합)**
  -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남북은 보건의료협력을 위해 20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제1차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음을 밝힘.
  - 이번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음.
- **샘복지재단, 평양에 제약공장 완공(12/7,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샘복지재단(총재 박세록)은 북한 주민들에게 비타민 영양제와 항생제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샘사랑 제약공장’을 평양에 세운 것으로 알려짐.
- **동해 남북 공동어로 추진(12/6, 연합)**
  - 6일 폐막한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동해 공동어로를 추



진키로 합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동해안 공동어로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농수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

- **남북물류 전진기지 도라산 물류센터 10일 준공(12/6, 연합)**
  - 통일부는 12월 11일 시작되는 남북 간 화물열차 운행에 맞춰 물류소통을 지원하게 될 도라산 물류센터 준공식을 10일 오전 11시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개최
- **경공업원자재 지원 대가 北광물, 11일 첫 국내반입(12/6, 연합)**
  - 북한이 경공업 원자재를 남측으로부터 지원받는 대가로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 광물이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6일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북한산 아연괴 500t이 이날 북측 김책항에서 선적돼 오는 11일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 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대북지원 사업 결정(12/6, 연합)**
  -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 설비 및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4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결정,
  - 대북 에너지 설비 및 자재 구입 등 총 8가지 대북사업에 390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로 의결하고 이 가운데 6자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에너지 설비 및 자재의 경우, 철강류 5천과 중유보일러 등을 남북협력기금 45억원 이내에서 제공 결정
  - 올 겨울에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옥수수 5만t, 180억원어치를 이달 말부터 지원하기로 결정
  - 경의선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식(12월11일) 비용 4억8천만원과 이 열차 운영을 위한 마무리 공사용 자재장비 지원비용 51억7천만원,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각종 현지조사비용 2억700만원 등을 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건 의결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제주산 감귤 8천t의 수송비 19억7천만원,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사업을 위한 비용 3억1천700만원, 개성공단 입주업체 2곳의 손실보조 약정체결 신청에 따른 비용 84억원 승인
- **문산~봉동 화물열차 군사보장 합의(12/5, 연합)**
  - 남북은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8개 항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 서명



● **경협공동위원회 향후 남북경협 추진일정**

- 회담

- ▲ 남북농수산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14~15.개성)
- ▲ 개성공단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0~21.개성)
- ▲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0~21.개성)
- ▲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 제1차 회의(12.25~28.부산)
- ▲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1월.개성)
- ▲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1.22~23.개성)
- ▲ 남북도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2.12~13.개성)
- ▲ 남북경제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08.4월.개성)
-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제2차 회의(08.상반기.평양)

- 현지조사

- ▲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12.11~17)
- ▲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제2차 현지조사(12.11~)
- ▲ 개성-신의주 철도 현지조사(12.12~18)
- ▲ 개성공단 2단계 측량·지질조사(12.17~)
- ▲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12.20~26)
- ▲ 농업협력 현지조사(12.21~25)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6자회담, 내년 1월 이후 개최**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방북(12/3~5) 이후 베이징에서 중국 및 러시아 측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차기 6자회담 일정 등을 논의했음(12/6).
- 그는 기자들과 만나 차기 6자회담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등 연휴로 올해 안에 개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그는 핵불능화 작업이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렵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핵 연료봉 제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핵불능화



달성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미 관리, “북핵 불능화 일부 연장 양해 이뤄져”(12/2)

- 미국의 한 관리의 북한 핵시설 불능화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NHK, 12/2)와 관련, “총 10단계 11개 조치로 이뤄지는 불능화 작업 중 폐연료봉 인출과 관련한 2개 조치는 (방사능 오염 등)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연내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데에 당사국들 간에 양해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돼도 경수로 협력 안해”

- 에드워드 마키 미 하원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대북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서한을 미 정부에 보낸 바 있음(10/3).
- 제프리 버그너 미 국무부 의회담당 차관보는 이에 대한 답신(12/4)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대북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핵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6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준수”라며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북한 경수로 건설 재개를 제의한 바 없고, 그 프로젝트는 정말로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 힐, 방북시(12/3~5)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방북시 박의춘 외무상과 김계관 부상 등을 만나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양형섭 최고 인민회의 부의장과의 면담했으며 미국 전문가팀이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도 둘러봤음.
- 힐 차관보는 방북 일정 중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박의춘 외무상을 통해 전달(12/5)했음.
- 미국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처음으로 보낸 친서의 내용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올 12월 31일까지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complete and accurate) 핵신고를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12/7).
-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핵탄두 수, 무기급 핵물질 생산량, 핵 기술·물질 이전 공개 등 3가지 난제의 해결을 강조했다며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12/7)했음.



- **힐, “북 핵신고 2~3주내 이뤄질 것 기대”**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12/6) “북한이 핵 신고목록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2~3주(a couple of weeks)안에 핵 신고 목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외에도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해온 나머지 4개국 지도자 모두에게 각각 다른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백악관은 북한 핵 활동의 전모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다른 4개국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12/6).
- **힐, “러, 북한에 중유제공 의사 확인”(12/7)**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주중 러시아 대사로부터 북한에 중유 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북한에 보낼 중유 중 11월분의 선적분을 맡았으나 중유 제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부시, “김정일 답신 희망. 한국정부 역할 기대”**
  -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연내 완전한 핵신고를 촉구한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 조만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또는 다른 방식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12/8).

#### 다. 중·북 관계

- **북, 중국 상대로 개성 투자유치 나서**
  -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양성만보(羊城晚報)는 “조선(북한) 개성이 투자유치를 위해 광둥(廣東)성에 왔다”고 보도(12/4)했음.
  - 신문은 북한 무역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달 개성 1일 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관광업, 식품가공, 무역 등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중점 대상으로 식품가공, 포장, 포장인쇄, 플라스틱제품, 건재, 도자기, 요식, 관광서비스업 등을 꼽았음.
  - 그러나 투자유치 주체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아닌 무역성이 나선 점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모집하려는 것이기보다는 향후 개성관광의 활성화에 대비해 식당·상점 운영 및 기념품 제작·판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목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라. 일·북 관계

- **일 국회특위, 북 테러국 해제 반대 결의**
  - 일본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국 지정 해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채택(12/5)했음.

- 결의안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를 테러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테러지원국가 지정이 해제되면 많은 일본 국민을 낙담케 해 미·일 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지정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마. 기타 관계

##### ● EU, 대북 식량지원 착수

- 중국 선양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EU측이 중개인을 통해 선양의 한 식량회사와 대북 지원용으로 보낼 밀가루 4천t(896만 위안, 약 11억 2천만 원)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에서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북한에 내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음(12/3).
-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대북 지원에 잇따라 참여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대북지원 목표액 1억223만 달러의 50%에 이르는 5천95만4천 달러(11/27 현재)가 모금됐으며,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 영국 한인촌 뉴몰든, 탈북자 새 정착지로

-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아 살고 있는 탈북자는 뉴몰든 일대에만 40~50명에 이르고, 영국 전역에 1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온 뒤 동남아 국가를 거쳐 영국까지 오는 탈북자들은 처음에 뉴캐슬, 리즈, 리버풀, 버밍엄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으나 말도 통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자 한인들이 몰려 살고,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도 상당수 있는 뉴몰든 일대로 옮겨오고 있음.
-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오는 이유는 난민 허가를 받기 쉽고, 난민에 대한 대우가 비교적 좋으며, 한국인들이 몰려사는 한인 동네가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하기 편리하기 때문임.

## 2. 주변국 관련

#### 가. 중국 관계

##### ● 중,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마샤오허(馬曉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부원장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3조 위안(3조1천억 달러)을 돌파하면서 독일(약 3조 달러)을 제치고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며 경제성장률이 11.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음(12/6).



- 중국은 지난 2005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바 있음.

#### 나. 러시아 관계

##### ● 러 총선(12/2), 여당 압승

- 러시아 연방하원(국가두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약 64%를 득표한데 비해, 11.6% 득표에 그친 「공산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총선 직후 관권, 금권 선거 등 각종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다. 한·미 관계

##### ● 한·미, “완전한 신고 이뤄지면 4자 정상선언 추진”

- 한·미 양국은 북한 핵불능화와 핵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고가 완전하게 이뤄질 경우, 핵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12/3)했음.
- 북핵폐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12/3~4) 중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따라 만나 한·미 관계 전반과 북핵문제, 북·미 관계정상화 등 현안을 폭넓게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백 실장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서울 방문과 관련, 미국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접촉했던 내용 중 미국과 관련된 문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라. 미·중 관계

##### ● 미·중, 고위급 국방회담 개최(12/3~4)

-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국방회담에서 중국에 전략적 핵대화를 제의했고, 중국은 미 의회의 핵관련 군사교류 금지(스미드 가이드라인) 해제를 요청했다고 보도(12/6)했음.
-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했으며, 미·중 국방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항공모함 키티호크호 선단과 순양함 퇴벤 제임스호의 홍콩항 입항을 거부(11/21~22)한 문제도 논의했음.

##### ● 후진타오·부시, 전화통화서 북핵문제 논의(12/6)

- 「신화통신」은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와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음.



-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행동들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제2단계 행동이 이미 순리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히고 각 당사국은 어려운 기회를 잘 잡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후 주석은 베이징에서 개막(12/12)되는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와 제5차 중·미 전략대화가 양국 간 건설적인 합작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했고, 부시 대통령은 미국도 이 두 차례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화답했음.

동북아연구실 제공